

고양이의 생태와 구급처치법

조 준 행

청운동물병원

머릿말

인류가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란 이야기가 확실히 되고 있다. 그것은 이집트시대로 부터 유럽이나 아시아에 퍼져서 한국에 불교와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그때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이었고 경전이 항해도중 배안에서 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쥐의 천적인 고양이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안다.

이것을 계기로 농가나 도회지에서는 식품취급소에서 고양이의 본능을 이용하게되어 쥐를 잡고 또 근접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르고 있다.

그동안 5,00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이 차차 한국기후 풍토에 적응되어 집고양이로서 쥐만 잡는 동물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들의 벗으로서 기르게 되었다. 한편 개와 비교하여 보면 개는 복종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가지 능력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 성능을 세분하면 군용견, 열견, 목양견, 썰매개, 맹도견등이 그것이다. 오늘과 같이 근대화된 세상에서도 후각의 기능이 더욱 개발되어서 마약수사견이 세계각지의 국제공항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와같이 개와 비교해보면 고양

이는 가축화에 대하여 저항하여 왔고 뚜렷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에서 보면 「톡소플라즈마」라는 사람과 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의 감염원으로서 고양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 공중위생상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양이를 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고양이는 고독을 즐기고 이기적이며 질투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작은 야수이기도 하다. 「움직이는 보석」이라는 표현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 흙문은 발로 땅을 어지럽히든가 아끼는 고급가구를 발톱으로 긁어 못쓰게 만든다든가 의복을 털투성이로 만드는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외에도 고양이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고양이가 일으키는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고양이를 기르는 동기는 여러가지이나 사랑해서라든지 가없어서라든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따뜻한 마음이 서로 통하는 말 없는 친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 기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고양이는 아무 이유없이 가출할때가 많으나 실종된 수일을 어디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지 않았는가, 더욱 애정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았을 것을 등 깊은 반성과 함께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을때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다. 또 병의 발견이 늦어져서 치료의 보람도 없이 이세상을 하직하게 되었다면 고양이를 길렀던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서도 도회지의 인구는 늘어나고 그 많은 가정은 핵가족화하고 거대한 현대문명 속에서 인간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주거형태는 소형화하고 아파트와 같은 집단화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때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동물 환축의 과반수를 고양이 차지할 정도로 고양이 사육의 열기가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임상수의사들도 다가오는 고양이사육에 대비하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 차제에 고양이의 생태와 구급처치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생 태

1) 특 성

인간이 기르고 있는 많은 동물중에서 고양이만큼 자주성이 강한 동물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양이가 혼자서 만족하게 행동하는 것도, 가까운데적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태세도 없이 밥을 먹고 있는 것도 그것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 하나는 고양이는 개와 같이 군집성의 생활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 고양이가 음식을 먹든가 마실때 그 동작을 보면 꼬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구부린 자세를 취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을 남이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는 장기간의 야생

시대의 습관화된 흔적이다.

고양이를 기른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도 길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고양이란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식동물

가장 초보적, 기본적인 것이 식성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고양이는 고등어만 좋아하는줄 알고 있다. 그래서 고양이 밥은 고등어란 생선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가 이것만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영양면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얼마전에는 고양이는 자유로이 행동해서 본래의 사냥본능을 발휘하여 작은 새나 쥐, 개구리, 곤충등의 작은 동물을 포획해서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도 전원지대에서 사육되는 고양이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증거로는 농가의 고양이들은 옛날식의 고양이밥으로써도 영양적 결함으로 인한 병이 적지만 도회지의 고양이에서는 칼슘부족으로 일어나는 구루병이 많아지고 있다. 또 전원지대의 고양이에서는 개구리나 도마뱀등으로 감염되는 기생충병을 볼 수 있으나 도회지의 것들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야행성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이나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보면 이들이 참으로 야행성인가 의심된다. 저녁에 인간생활에 맞춰서 자고 있는 것을 볼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정기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동이 일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주위 고양이의 움직임이 저녁이 됨과 동시에 일변해서 사람의 눈치를 봐 바깥으로 나가려 한다. 연애도 야간에 가장 왕성하게 한다. 사람 싸움도 꼭 밤중에만 한다. 고양이의 눈은 사람에게 비해 1/6광도를 감지할 수 있다. 그 증명으로 한밤중에 벽에 뛰어 올라가든가 지붕사이를 뛰어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단독생활자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떼지어 생활하는 사자는 유일한 예외이고 다른 야생 고양이는 단독생활자이다. 어린이가 성숙하면 부모와 떨어져 살듯이 우리가 기르는 집고양이들도 본질적으로 단독생활자이다. 모자간의 단절이 있어도 이상해하지 않고 낯선 고양이에게 불친절하거나 우호적이 아닌것도 이상할 바 없다. 이들은 집단적 사회생활이 능숙하지 않으나 현재의 집고양이들은 서로의 주장을 존중해서 한지붕 밑에서 여러마리가 별탈없이 지낼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고양이는 협조적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통솔자는 존재않는다고 보아진다. 고양이의 단독생활습성과 비복종적 본질은 야생시부터 지너온 고양이의 중요한 특성이며 본질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구속받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주인과 대등한 관계로 존재하고자 하며 항상 음식을 얻고 보호받고 있다.

귀소본능

개는 집주인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나 고양이들은 살고있는 집이나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다. 이런 일은 고양이의 야성의 시대부터 본능에 기인하고 이 본능이 고양이가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도 가축화가 늦어진 원인으로 보인다. 단독생활자로서의 고양이는 자기의 주의대로 이사한 집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먼저살던 집으로 돌아오는 수가 많다. 이 귀소본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어 있지 않다.

수렵본능

고양이의 사냥방법은 사냥감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앞발의 발톱으로 잡고 물어서 죽이는 것이 기본이다. 날카로운 견치는 잡은 동물의 경추를 물어뜯어 척수에 손상을 입혀 치명적으로 만든다. 이는 동물학자들이 늑대등 개과동물이 사냥감의 목줄을 끊는 방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양이의 수렵본능은 옆집의 작은 새를 습격하거나 연못

의 잉어를 잡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이 본능을 교정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집에서도 작은 새를 길러서 고양이가 새장에 가까이 가지 않게 길들이면 가능하다. 또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두면 옆집사람도 고양이가 다가온것을 알고 고양이를 쫓아내게 될 것이다.

몸치장

고양이는 청결벽이 있다. 배변시에도 꼭 땅을 파서 볼일을 마치고 다시 묻는다. 그리고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난다. 사는 곳을 더럽히지 않고 틈만 있으면 털손질을 한다. 고양이를 볼때 피모의 광택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청결벽의 탓이다. 그러나 뛰어난 솜씨에 실패하든지 주인에게 야단맞으면 아주 짧은 사이 몸치장을 하나 이것은 실패하든지 야단맞았기 때문에 하는 전환행동으로 보아진다.

초능력

고양이의 귀소성에 대해서는 집비둘기나 벌등의 체내시계설로 설명하는 이론도 있으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는 않다. 고양이가 죽을때 몸을 감추는 행동은 신비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는 체력이 쇠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옮겨가서 죽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의 예로서 이사중에 잃은 고양이나 두고온 고양이가 새로운 땅에 이사한 주인을(광장한 거리간격) 찾아냈다는 얘기나 지진, 화재등을 예측했다는 얘기 등이 고양이의 초능력으로서 이해되어 있다.

2) 지능과 행동

고양이의 심리를 연구한 학자의 말로는 고양이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에 가까우나 뇌의 움직임은 사람보다 열세하고 다른동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사람과 가까운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고양이에게도 사람들에서와 같이 멍청이로부터 천재까지의 큰 차이를 가진 지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양이에서도 사람

에서와 같이 실신하든지 정신이상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같은 고양이에서도 각각 개체차가 있으며 그 차는 축주의 고양이에 대한 보살핌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학 습

동물중에는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만 생활하고 있는것이 있으나 그 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경험과 모방에 의해 무엇인가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생긴다.

- ① 체력을 이용하여 걸어가거나 뛰거나 헤엄치는 것을 배우는것
- ② 모방에 의해 자기몸을 깨끗이 하는것.
- ③ 자연환경아래에서 과거의 많은 잘못을 회피하는것등의 경험이라 생각된다.

고양이에게 재주를 가르칠 때 다른동물에서는 간단하게 잘 해내는 극히 초보적인 재주라도 많은 시간과 사랑 그리고 인내로써 고양이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해서 가르쳐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 이것은 고양이가 쉽게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증거이다.

대 화

고양이는 고양이의 사회생활이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고양이의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그들에게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 고양이의 이야기는 오줌을 누거나 발톱을 갈거나 머리를 상대방에게 가깝게해서 부비거나 꼬리를 똑바로 올려서 자신의 허리를 부비는 행동과 자기의 냄새를 상대방의 몸에 묻히는등 자신의 감정 표시를 하는 행동등이 그들의 대화가 된다.

저녁에 모이는 고양이들의 회의는 우리가 보기에 몇마리의 고양이들이 아무런일 없이 한자리에 몇시간이고 앉아있다가 헤어지는 것과 같이 보이나 고양이 사이에는 활발하게 말을 주고 받는것이다.

또 이들은 개만은 못하나 이들대로의 순위가 있고 식사를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것 같다.

또 갑자기 가까이 온 사람의 얼굴을 핥든가 손을 핥는것은 자신의 생활권을 상대방에게 개방한다는 행위이다.

모 성

고양이는 모성본능이 강하다. 어린 고양이에게 젖을 주고 핥아서 오줌과 똥을 배출시키는 행위나 털을 핥아서 잘 다듬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린 고양이가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모든 대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발육도 잘되게 한다.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에는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외적이 나타나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게 된다.

또 어미고양이 자신의 행동으로 배설물의 처리와 모래상자(배설물 보관장사)의 사용법과 배설물로써 자신의 행동범위를 표시하는 것까지 가르친다.

공격성

고양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람을 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격리된 상태에서 자란 새끼고양이는 60일쯤 된 고양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대해서 등을 꾸부리고 털을 세워서 싯소리를 내며 공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일은 집고양이 아닌 들고양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고양이의 공격성은 적당치 않은 주위환경에 의해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적으로 부터 피하기 위한 공격적 태도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고양이 자신이 위협을 입었든가 또는 상대방으로 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이 장소를 피해 도망가거나 반대로 공격하기도 하니 고양이를 다루는 사람은 이들을 갑자기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어서는 안된다.

가끔 사진을 보면 고양이와 개가 한데 엉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수 있는 환경에서 사회화가 잘된 표

본이다.

또 고양이는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것을 붙잡아서 노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작은 공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놀며 이 공을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대상이 없는 환경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가끔 자기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보고 뛰어들어서 사냥하는 품을 내기도 한다.

교 미

종족의 번영은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본능이다. 고양이에서도 예외없이 그 본능에 의해서 수컷과 암컷이 인연을 맺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교미기는 년 3~4회가 되며, 야간에 지붕을 타고다니며 갓난 아기울음소리 같은 독특한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의 귀를 긴장시키며 많은 사람의 신경을 건드린다. 이때가 그들의 발정기로써 암고양이는 이런소리를 내어서 주위에 있는 수고양이의 관심을 끌고 또 행동으로 몸을 낮게 굽혀 가슴을 바닥에 부비고 뒷다리로 발장단을 치며 꼬리는 위로 올리고 꼬리끝은 바깥쪽으로 구부린다. 이때가 되면 사람의 발등을 부비며 그들의 허리가 사람 몸에 닿으면 외음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꼬리를 높게 올린다. 또 독특한 냄새를 발산하고 수고양이는 어디서인지 모르게 모여오는데 이 수고양이들은 암고양이의 냄새로 성적자극을 받아서 집안의 기물이나 기동, 문짝 할것없이 오줌을 뿌리고 다닌다. 이 행동은 경쟁대상이 되는 다른 수고양이에 대해서도 자기의 세력 범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발정현상이 격렬해도 아무 수고양이나 상대해서 교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를 자신이 선택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지는 몰라도 이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증거로는 싫어하는 수고양이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단지 선택된 수고양이만이 남편노릇을 하

며 육체적으로 피로 할때까지 계속 교미를 하게 된다.

3) 도회지의 고양이

전원생활하는 사람에게 길러지는 고양이는 행복하다. 그것은 5000년이래 변하지 않는 생활 방법으로 나날을 보낼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회지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아 가끔 적응을 못해서 곤란한 경우를 받게된다.

운동제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살고있는 고양이는 사람의 주거환경만이 행동범위가 된다. 그러므로 식탁이나 찬장에 기어오르거나 커튼을 따라 오르는 것이 운동이 될 뿐이다. 그러니 아파트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은 운동부족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고양이는 가족의 어깨에 뛰어 오르거나 가구의 그늘에 숨어있다가 걸어오는 사람의 뒤축이나 슬리퍼에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지 방안을 이리저리 미친듯 뛰어다녀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런 때는 털실로 만든공을 바닥에 굴러서 고양이의 수렵본능을 자극하여 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계절감의 결여

실내의 공기의 온도가 조절되는 방에서 살고있는 고양이들은 계절감의 결여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번식계절은 부정확하게 되고 털바꾸는 시기도 재멋대로 된다. 또 태양광선의 부족도 건강유지에 영향을 주게된다.

외로운 고양이

집고양이 중에는 때에 따라서는 일생동안 다른 고양이와 만나보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양이는 사람을 고양이로 생각하고 반대로 사람은 고양이를 사람으로 대하게 된다. 이런 시기가 길면 길수록 말없는 고양이가 되고 친구가 없는 고양이

는 고양이말을 할수없게 되며 교미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미를 하기 위한 사립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상태의 고양이들은 대체로 교미불능이 되기 쉽다.

주거적응

대다수의 고양이들은 자신이 어릴 때에 살던 장소에 잘 적응한다. 새끼 때 부터 잘 길들이면 주거범위를 인식하게 되고 돌발사고가 없는 이상, 주거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고양이는 대단히 섬세하고 주의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처할때는 그 주위를 잘 살펴서 적이나 이상한(이해못하는) 물체나 음향과 냄새를 확인한 후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게 된다.

고양이로 인한 피해

고양이가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고양이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이웃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이들은 눈깜짝할 사이 정원이나 화단을 못쓰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값비싼 화분을 쉽게 뒤집어 엎어서 못쓰게 만들기도 한다. 고양이는 자신의 생활반경 내에서 배설행위를 하나 꼭 자신의 배설물을 땅을 파고 묻는 습관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이를 이용해서 가정 내에서는 모래상자를 준비해 주면 배설물 처리에 좋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고양이나 소형견의 과학적으로 만든 변기를 팔고 있다.

그러나 숫고양이의 배뇨행위는 자신의 세력범위를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적하는 물체에 마치 Spray상으로 뿌린다. 이때 번쩍이는 고급차의 차바퀴가 그 표적이 되는수가 많다. 반짝이게 닦아놓은 자동차호일에 악취의 Spray를 매일 뿌어준다면 이는 누구도 환영할 수 없을 것이다.

집에서 기르는 새나 물고기(관상어)는 짓궂은 고양이의 사냥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사랑은 격렬하여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적어도 1주간은 주위의 환경을 어지

럽힌다. 서로 울어대는 그 묘한 울음소리 뿐만 아니라, 암고양이의 울음소리와 그들의성을 자극하는 냄새로 숫고양이들의 투쟁이 이곳 저곳에서 서로 물어뜯고 또는 높은 지붕에서 싸우다가 떨어져 내려올 때는 고양이 특유의 낙하의 비법도 소용없이 골절상이나 심한 내출혈을 입어서 병신이 되거나 동물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다.

이런 번식기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고양이가 계속 모여들어서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길바닥에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양이로 부터의 피해는 한없이 많으나 고양이 알레르기인 사람은 고양이의 모습만 보고도 알레르기 발작을 일으킨다는것은 좀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싫으나 좋으나 이 지구상에 고양이가 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욱 고양이의 수가 늘어날것은 명확하다. 우리는 고양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알아서 고양이의 좋은 점은 더욱 살리고 이것을 훈련시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를 주었던 점을 연구 분석하여 고양이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나온 “소동물임상”(83년 No. 4)

전국 소동물임상뉴-스에는 일본 북해도 삿포로시에선 고양이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현재 사육고양이 15,000마리, 들고양이 5,000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피해로서는 어린이가 물렸다든가, 아무 곳이나 배설하고 화단이나 발을 못쓰게 만든다든가 쓰레기를 이곳저곳에 헤쳐서 먼지를 낸다는 등 여러가지 진정을 들어서 시에서는 고양이를 등록을 시키고 목줄레를 사용하여 들고양이와 구별하여 주인없는 고양이를 없애는 방법으로 고양이 사육규제법을 연구중이며 이미 일본 도쿄에서는 금년 여름에 들고양이 소탕전을 위한 연구를 하였으나 고양이 애호가협회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아서 흐지부지 되었고 단지 시즈

오카, 나가사키, 교토 등 몇곳에서는 시 단독으로 고양이 보호관리 지도요령을 만들어서 고양이로부터 오는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소동물 임상수의사로서는 고양이를 올바르게 기르는 것을 지도하고 그들을 더욱 행복하게 살수있게 하기 위하여 피임수술을 선진국과 같이 행정당국과 잘 협조해서 실시하여 사전에 고양이의 피해를 막는것이 우리와 함께 남아있을 고양이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구급처치법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상처나 병은 병을 치료할수 있는 기구 시설이 없을 때 당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구급처치에 필요한 기구나 약품을 준비하여 고양이의 구급처치에 만전을 기할것이다.

1) 화 상

부분적인 화상

화상은 정도에 따라서 1도부터 3도로 분류되어 있으나 제일먼저 화상부위를 차게하기 위해 청결하고 부드러운 형겔을 찬물에 담근 다음 화상부위에 대준다. 그후 소독된 거즈를 화상부위에 대어 은근하게 말린다(습기제거). 다음 청결한 붕대로 느슨하게 감는다.

출혈이 있었을때

차고 부드러운 거즈로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한다.

다음 지혈이 되면 환부의 털을 잘 잘라내고 소독약을 바른다.

전신적인 화상

뜨거운 목욕물에 빠졌을 때는 우선 안정시키고 호흡이 편해지도록 목의 위치를 잘 잡아주고 찬물 수건으로 전신을 차게하는 것은 좋으나 전신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몸이 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붉게 부풀거나 손상부위가 심할 때는 될수록 자극성이 적은 소독약을 사용하여 환부를 청결하게 하고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것

이 좋다. 더욱 중증일때는 오염된 화상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화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한다.

2) 생선뼈에 찔렸을때

입안의 볼수 있는 곳에 생선뼈가 찔렸을 때는 간단하게 핀셋으로 힘 안들이고 뽑아낼 수가 있으나 인후등 깊은곳에 생선뼈가 걸렸으면 우선 마취를 가볍게 하고 몸을 꼼짝 못하도록 고정시킨 다음 개구기로 입을 될수록 넓게 열고 밝은 조명아래서 정성스럽게 차근 차근 빼내는 것이 좋다.

3) 바늘에 찔렸을때

실이 달린 바늘이면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고 뽑아낼수가 있으나 바늘뿐일 때는 조직 깊게 들어가게 되면 바늘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몸을 움직이지 말게하고 X-ray투시를 하면 지금 어느부위에 바늘이 있는지 알게 된다.

4) 가스중독(일산화탄소 중독)

사람에서와 같이 우선 신선한 공기를 흡입시킨다. 호흡이 미약할 때는 흉벽을 문질러주고 그래도 호흡에 이상이 있는지 회복이 늦을 때는 산소흡입이 필요하게 된다.

5) 골절이나 탈구

골절이나 탈구된 다리는 절대로 부비거나 주물러서는 안된다. 그것은 통감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주위의 혈관이나 신경에 상처를 주게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될수있으면 부자연스럽게 꾸부러지거나 통통 부은 다리를 가급적 원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무부목을 댄후 X-ray를 찍어서 정확한 병명을 알아낸 다음 골절이나 탈구처치를 하는 것이 좋다.

6) 출혈

일반적으로 출혈은 축주를 가장 놀라게 하는 사태이다. 응급의 처치로는 제일 먼저 거즈로 출혈된 주변을 훑치고 어디서 어느정도 출혈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출혈의 위치를 찾아내어 우선 압박하여 지혈한다. 이때 얼음으로 차게 하는것도 효과적이다. 또 사지나 꼬리의 출혈은 출혈부위보다 위쪽을 끈으로 매어주는데 출혈부위에 지혈이 되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대 출혈이 아닌다음에는 2~3분사이로 잡아맨 끈을 늦추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7) 인공호흡과 심장맛사지

급격한 충격등으로 호흡이 멈춰졌을 때 고양이를 옆으로 눕히고 목을 편탄하게 하고 혀를

잡아내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찬찬히 누르고 다시 손바닥을 놓고 호흡이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때때로 심장부에 손을 대어 심장의 고동을 촉지할 수 있으면 인공호흡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심장의 고동이 손에 잘 전해지지 않은 상태이거나 심박동이 부정스럽게 되면 심장맛사지도 필요하다.

이 작업은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의 기능을 사람의 손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고양이를 옆으로 눕고 머리를 내리면 가슴의 좌우부터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심장을 잡는것 같은 형태로 누르고 후퇴하고 하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전신 특히 머리쪽에 혈액을 보내는 것 같이 한다.

● 家畜臨床診療學

豚 編

李 芳 煥 / 著

*정가 豚 編 15,000원

※ 송료 900원과 함께 대한수의사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